

‘이와스몬·간스이몬’

이와스몬

우라쿠엔의 장엄한 정문은 17 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라쿠엔에 있는 다른 문과 마찬가지로 이 문도 예전에는 미쓰이 가문이 소유했고, 오이소 별저 정원에 있었습니다. 이후 조안과 함께 우라쿠엔으로 이축되었습니다.

이 문의 지붕은 범종 모양으로 만곡되어 있는데, 측면에서 보면 그 형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굽어있는 문은 '가라몬'이라 하며, 지붕 가운데 용마루 부분이 입구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문은 '히라카라몬'이라고 합니다.

이 문의 지붕은 히와다부키(노송나무 껍질을 사용한 지붕)로 되어 있는데, 판자가 오목하게 구부러져 있어 배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선저천장(船底天井)'이라고 불립니다.

간스이몬

간스이몬의 연대와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 문도 예전에는 미쓰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호리구치는 이 문을 우라쿠엔의 어디에 배치할지 정할 때, 기하학적이고 족자의 가장자리처럼 깔끔한 이 문의 라인을 살려 안뜰이 사진틀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경관을 만들어 냈습니다. 문을 지나면 가지런히 깔린 돌담길이 길고 곧게 뻗어 있고, 나무와 이끼가 우거진 터널 너머에는 쇼인의 서쪽이 나뭇잎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